

여고생들의 체중조절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 연 희* · 홍 양 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건강교육과 ·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교육과)

목 차

I. 서 론	IV. 결론 및 제언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기로서 유아기에 이어 제 2의 급성장시기이며, 이차 성징의 출현과 함께 모성기능을 갖추고 자아개념이 확립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구재욱 외, 1983).

그러나 청소년기는 외모 특히 체형에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로서 외모에 대한 관심과 이 시기의 식사의 질 저하와는 일련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용주 1988).

근래에 와서 청소년층에서는 날씬한 체격 및 체형에 대한 동경과 맹목적인 미의 추구를 위해 의식적으로 지나친 소식과 빈번한 결식을 하는 등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박유경 1989) 이러한 결과는 양적 질적으로 불균형의 영양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14세에서 18세 소녀들을 대상으로한 Macdonald의 연구는 체형과 식품섭취의 질과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할 때 이상적인 체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식이 섭취량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식사의 질이 저하 된다고 하였다.

Hinton은 날씬해지려고 하는 지나친 욕구는 빈혈, 성장 저하는 물론 신경성 소화불량, 심리적 장애, 먹는 것에 대한 혐오감 등을 수반 한다고 보고 하였다.

청소년기 여고생들의 건강행동은 개인의 건강유지 뿐 아니라 장래의 국가를 짊어질 주인공이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의 어머니가 될 책임이 있는 세대이므로 국민건강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건강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고생들의 체중조절에 관한 파악과 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건강교육 측면에서나 학교교육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첫째, 표준체중측정법을 이용해 조사 대상자의 객관적인 자기체형을 측정하고 자기체형에 대한 주관적인 현재 만족도를 파악한다.

둘째, 여고생들의 체중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1) 일반 특성 변인 (2) 체형에 대한 만족도 변인 (3) 외모에 대한 관심 변인 (4) 건강에 대한 관심 변인을 설정하고, 이 변인들을 각각 파악하고 동시에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한다.

셋째,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 체형에 대한 만족도, 외모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의 관련성에 대해 규명하고 이들 요인들이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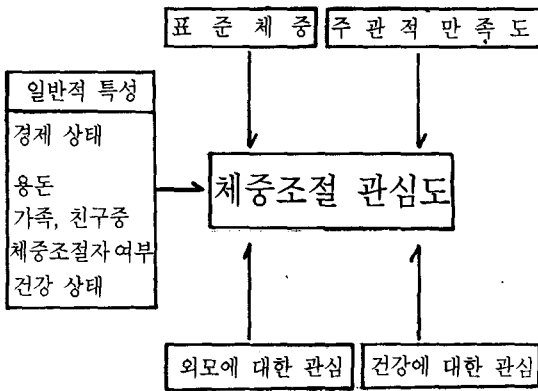
넷째, 체중조절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분류된 변인들 가운데 체중조절 관심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한다.

3. 가 설

1) 여고생들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객관적인 체형(표준체중)보다 체중조절 관심도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건강에 대한 관심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여고생들의 체중조절 관심도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3개교와 상업계 여자고등학교 3개교를 선출하여 총 680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2. 연구도구

1) 표준체중 측정

* Broca 변법

$$\text{표준체중} = (\text{신장} - 100) \times 0.9$$

* fat % 측정

EZ COMP 7000을 이용하여 성, 신장, 체중, 연령, 팔목둘레를 입력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오른손, 오른발 관절 부위에 Pad를 붙인다. 붉은 전극을 심장 가까운 쪽에, 검은 전극은 먼쪽에 연결시킨후 5초동안 전극이 흘러 fat%를 측정하였다. 입력사항인 신장은 inch(1inch=2.54)로, 체중은 pound(1pound=453g)로, 연령은 만 연령으로, 팔목둘레는 소, 중, 대로 그 크기에 따라 입력하여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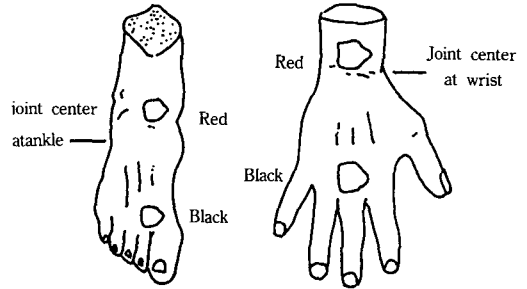


그림 sensor pad를 붙이는 부위

2) 설문지

(1) 일반 특성 조사

조사 대상자의 신장, 체중, 경제수준, 친구나 가족의 체중조절 여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체형에 대한 만족도, 체중조절 관심도 조사

현재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관심도, 관심의 동기를 조사하였다.

(3) 외모에 대한 관심

본 도구는 연구자가 고안한 것으로 여고생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기 위해 10개 항목을 만들어 이에 대한 응답은 “높은관심”(3점), “보통관심”(2점), “낮은관심”(1점) 등 3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항목별 내용은

- 1) 나는 거울을 자주 본다
- 2) 나는 모리모양에 관심이 있다.
- 3) 나는 날씬해지려고 음식조절을 한다.
- 4) 나는 TV나 잡지에 나오는 텔런트나 모델, 가수처럼 날씬하면 좋겠다.
- 5) 나는 예쁘고 날씬한 친구가 부럽다.
- 6) 나는 날씬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치를 수 있다.
- 7)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 8) 나는 몸매를 위해 미용체조를 해본 경험이 있다.
- 9) 나는 내 외모로 고민을 해 본적이 있다.
- 10) 나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로 구성하였고 이렇게 구성한 개별문항들이 척도로서 타당한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각 문항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 변인을 단일적으로 구성하는 문항들이 확인되었다.

(4) 건강에 대한 관심

항목별 내용은

- 1)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 2) 건강을 위해 식사량을 조절한다.
 - 3) 건강을 위해 자극적이고 짠것은 먹지 않는다.
 - 4) 건강에 담배는 나쁘다고 생각한다.
 - 5) 성인병 예방을 위해 체중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6)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 7) 1년에 한번 정기 검진을 한다.
 - 8) 소금, 설탕, 동물성 지방을 적게 섭취하고 영양을 균형있게 섭취한다.
 - 9) 피로가 쌓이지 않게 주의한다.
 - 10) 나는 늘 건강에 관심이 있다.
- 로 구성하였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5)6)항목을 7개항목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냈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특성

표 1. 대상자의 일반 특성

특 성	구 분	실수(명)	백분율(%)
한달 총 수입	50만원 미만	18	2.7
	50~100만원 미만	128	19.5
	100~150만원 미만	219	33.3
	150~200만원 미만	177	26.9
	200만원 이상	116	17.6
한달 용돈	1~3만원 미만	346	52.6
	3~5만원 미만	199	30.2
	5~7만원 미만	71	10.8
	7~10만원 미만	28	4.3
	10만원 이상	14	2.1
가족중체중조절자	있다	280	42.6
	없다	378	57.4
친구중체중조절자	있다	437	66.4
	없다	221	33.6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47	7.1
	건강하다	196	29.8
	보통이다	325	49.4
	건강하지 않다	80	12.2
	매우 건강하지 않다	10	1.5

2. 체형 및 체중조절에 대한 태도

1) 체형에 대한 인식도

현재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매우 날씬하다, 날씬하다, 표준체형이다, 약간 살찐 편이다, 매우 살찐편이다의 5종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약간 살찐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중 43.5%로 나타났고 매우 살찐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6%로 나타나 응답자의 54.1%가 현재 자신의 체형을 살찐 체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체형에 대한 만족도

체형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7%에 불과했고 날씬해져야 한다고 83.8%, 살찌야 한다고 7%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날씬해져야 한다고 여기며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었다.

객관적인 체형과 체형에 대한 만족도를 이원교차표를 작성하여 살펴보면, TYPE 1에 해당하는 학생중 60.2%가 날씬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1.2%가 만족, 18.6%가 약간 살찌야 한다고 응답하여 다른체형에 속하는 학생들도 과반수 이상이 더 날씬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YPE 2에 속하는 학생은 55.3%인데 그중 95.1%가 날씬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김용주(1987)의 연구에서 85.1%의 여고생이 표준체중 이하의 체형을 바람직한 체형으로 선택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여고생들이 다른체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YPE 3에 속하는 학생은 전체의 6.8%인 45명으로 그

표 2. 객관적인 체형과 체형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TYPE	날씬	만족	약간	많이	합계
	해져야함		살찌야함	살찌야함	
TYPE 1	136 (60.2)	48 (21.2)	42 (18.6)	0 (0.0)	226 (34.3)
TYPE 2	346 (95.1)	15 (4.1)	2 (0.5)	1 (0.3)	364 (55.3)
TYPE 3	43 (95.6)	1 (2.2)	0 (0.0)	1 (2.2)	45 (6.8)
TYPE 4	23 (100)	0 (0.0)	0 (0.0)	0 (0.0)	23 (3.5)
합계	548 (83.3)	64 (9.7)	44 (6.7)	2 (0.3)	658 (100)

$X^2=148.63$ sig=0.000

중 2명을 제외한 43명이 날씬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TYPE 4에 속하는 학생은 전원이 날씬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3)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는 관심이 있는 학생이 88.4%를 차지해 김용주, 손경희(1988)의 연구(79.8%) 보다 증가함을 볼 수 있었고 여대생 대상으로한 임영희(1989)의 연구(82.6%)결과와 비슷한 수준임을 볼 수 있다.

체중조절에 대해 관심을 갖게된 동기에 대해서는 마스크(TV, 신문, 잡지등)를 통해서가 41.2%,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가 35.2%로 높았고 학교 수업시간을 통해서 2.2%로 가장 낮았다.

표 3.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

관심도	실수(명)	백분율(%)
크게 관심이 있다	281	42.7
약간 관심이 있다	301	45.7
관심이 없는 편이다	66	10.0
전혀 관심이 없다	10	1.5
합 계	658	100.0

표 4. 체중조절에 관심을 갖게된 동기

동기	실수(명)	백분율(%)
마스크의 영향으로	240	41.2
학교 수업시간을 통해	13	2.2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205	35.2
가족들에 의해서	63	10.8
이성친구를 의식해서	61	10.5
합 계	582	100.0

3. 외모, 건강에 대한 관심

1) 외모에 대한 관심

외모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서는 “높은관심”3점, “보통관심”2점, “낮은관심”1점으로 3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을 측정한다는 방법으로도 “높은관심”3점, “보통관심”2점, “낮은관심”1점으로 3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 점수보다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는 “나는 늘 건강에 관심이 있다” (2.

표 5. 외모에 대한 관심

항목	평균	표준편차
나는 거울을 자주 본다	2.39	0.81
나는 머리모양에 관심이 있다	2.67	0.66
나는 날씬해지려고 음식조절을 한다	1.70	0.84
나는 TV나 잡지에 나오는 탤런트나 모델, 가수처럼 날씬하면 좋겠다	2.57	0.75
나는 예쁘고 날씬한 친구가 좋다	1.63	0.80
항목	평균	표준편차
나는 날씬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치를 수 있다.	1.56	0.74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2.20	0.83
나는 몸매를 위해 미용체조를 해본 경험이 있다	1.65	0.90
나는 내 외모로 고민을 해본적이 있다	2.55	0.74
나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21	0.85

11), “피로가 쌓이지 않게 주의한다” (1.83)였고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1.30), “1년에 1번 정기 검진을 한다”(1.30)가 가장 관심이 없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나는 늘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항목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가진 관심의 정도가 실제로 행동으로 행하게 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체중조절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준체중은 체중조절 관심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반면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체중조절 관심도에 크게 영향을 미쳐 가설 1인 “여고생들의 체형에

표 6. 건강에 대한 관심

항목	평균	표준편차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1.30	0.61
건강을 위해 식사량을 조절한다	1.57	0.81
건강을 위해 자극적이고 짠것은 먹지 않는다	1.62	0.82
1년에 한번 정기검진을 한다	1.30	0.64
소금, 설탕, 동물성 지방을 적게 섭취하고		
영양을 균형있게 섭취한다	1.76	0.77
피로가 쌓이지 않게 주의한다	1.83	0.85
나는 늘 건강에 관심이 있다	2.11	0.80

표 7. 체중조절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다변인 회귀분석

	종 속 변 인	체중조절 관심도	
	독 립 변 인	b(β)	b(β)
[a]			
용돈	0.979(0.133)***	0.918(0.125)***	0.495(0.067)*
체중조절 가족여부	0.249(0.174)***	0.181(0.126)***	0.860(0.060)
체중조절 친구여부	0.179(0.120)**	0.143(0.095)**	0.923(0.062)
건강상태	0.609(0.071)	0.312(0.036)	0.567(0.066)*
[b]			
표준체중		-0.351(-0.002)	-0.376(-0.024)
주관적 만족도		-0.405(-0.355)***	-0.366(-0.294)***
[c]			
외모에 대한 관심			0.690(0.396)***
건강에 대한 관심			0.185(0.080)*
	R ²	0.084	0.205
			0.357

* P<0.05, ** P<0.01, *** P<0.001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객관적인 체형(표준체중)보다 체중조절 관심도에 더 영향을 미칠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이것은 여고생들이 자신의 체형이 객관적으로 표준체형이나 마른체형이라 할지라고 자신의 이상체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불만족하며, 체중조절을 하여서 이상적인 체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외모에 대한 관심이 건강에 대한 관심보다 5배정도 체중조절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으로 가설2인 “건강에 대한 관심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여고생들의 체중조절 관심도에 더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 가설이 긍정적으로 채택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표준체중,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를 알아보고, 외모에 대한 관심정도,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를 측정하여 체중조절 관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조사 대상자는 서울시내 거주하는 여고생 65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들의 평균신장은 160.95cm, 체중은 52.06kg이었다.

2. 체형에 대한 인식도는 응답자의 34%가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살아있는 학생일수록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었다.

체중조절은 비만, 과소체중등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스스로 관심을 갖고 하는것이 바람직하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체중이 정상체중의 범위중 어느범위에 속하는지도 잘 인식하지 못한채 체중조절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에 의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체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체형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9.7%만이 만족하고 83.3%가 불만족을 나타내어 대부분의 응답자가 날씬해져야 한다고 여기며 불만족을 나타냈다.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는 응답자의 88.4%가 관심이 있다고 하여 선행연구들에게 보다 관심도가 높아졌고, 관심을 갖게된 동기는 매스컴을 통해서가 41.2%로 선행연구들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다 높게 나와 청소년들에게 매스컴의 영향력이 증가되어 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

3. 외모에 대한 관심은 30점 만점에 평균 21.11점을 나타냈으나 건강에 대한 관심은 21점 만점에 11.48로 외모에 대한 관심정도 보다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4. 체중조절 관심도에 대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모에 대한 관심 0.4920(<0.001), 체형에 대한 인식 0.3547(p<0.001), 가족중 체중조절자 여부 0.2130(p<0.001), 친구중 체중조절자 여부 0.1797(p<0.001h, 용돈 0.1576(p<0.001), 건강에 대한 관심 0.1209(p<0.001)이

매우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체형에 대한 만족도는 $-0.3922(p<0.001)$ 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체중조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5. 체중조절 관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인 회귀 분석한 결과 외모에 대한 관심($p<0.001$), 체형에 대한 만족도($p<0.001$), 건강에 대한 관심($p<0.05$), 용돈($p<0.05$), 건강상태($p<0.05$)가 통계학적으로 유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 변인들로 전체의 35.7% 설명이 가능했다. 그 중 외모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 가설1, 2는 모두 채택되었다. 가정된 대로 객관적인 체형(표준체중)은 체중조절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관적인 만족도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p<0.001$) 이러한 것을 볼때 여고생들은 자신의 체중과는 관계없이 체중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체중조절을 실시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여고생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보다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 정확한 지식과 정보에 의한 체중조절 보다는 유행성 식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체중조절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외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중요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 분석이 계속 요청되며, 그러한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행동적인 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구재옥외(1983), 특수 영양학,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2. 김광일외(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정신건강연구, 제1집, pp 1-7.
3. 김교천(1977), "고교생의 편식요인과 신체발달 및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 김기남(1982), "식습관과 성격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영양학회지, 제15권, 제3호.
5. 김수지, 노춘희(1990),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 대한간호 제29권, 제 2호, pp 11-15.
6. 김숙희외(1976), 영양원리와 식이요법, 이화여대 출판

- 부.
7. 김영태(1971), "여자에 있어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한 신체용적의 산출", 서울의대잡지, 제12권, 제 1호, 29-32.
8. 김용주(1987), "서울지역 여고생의 체중조절 관심도에 따른 식생활 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
9. 김화영(1984), "대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영양학회지, 제15권, 제 3호.
10. 모수미(1976), "매스컴에 의한 영양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 가정대학 논문집.
11. 문수재외(1981), "각 연령층에 따른 한국인의 섭식태도 및 영양실태의 생태학적 연구", 연세논집, pp324-325.
12. 박은중(1985), "서울시내 중학생의 점심식사 태도 조사", 아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3. 박순영(1977), "한국인의 성장발육과 표준체중치 정상적용 체중치에 관한 연구", 학술원 논문집, pp117-152.
14. 박유경(1989), "여대생의 체중조절 관심도와 식품에 대한 가치평가 및 기호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9.
15. 원재희, 유영희(1985), 특수 영양학, 서울 : 수학사.
16. 윤태영(1987), "일부 서울지역 남·여 고교생의 체격과 영양상태에 관한 유사종단적 연구"
17. 이성운(1985), "서울시내 남녀 중학생의 섭식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이영미(1981), "지역, 연령, 성별에 따른 한국인의 섭식태도 및 기호도에 관한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이영미(1986), "도시 청소년의 식생활 행동과 식품에 대한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 임국이, 김선효(1985), "청소년기 식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제18권, 제 3호.
21. 임영희(1989), "여대생의 체중조절 관심도에 따른 섭식태도 및 식품의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논문집, 제 8권, 제 2호.
22. 장순영, 황춘선(1987), "여대생의 식습관에 관한 연

- 구”, 여성 문제연구, 제 15집.
23. 정문자, 정정숙(1984), “초·중·고 학생들의 신체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제 3호, p1.
 24. 조병만(1983), “표준체중 산출을 위한 Modified Broca's Index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제 16권, 제 1호, pp.35-39.
 25. 조성희(1985), “도시 여고생의 신체충실지수와 소화기 및 생리장애 호소율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한희경(1984), “비만학생의 비만에 대한 의식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Adams, Gerald R.(1977), “Physical attractiveness research”, Human development, vol. 20.
 28. Barocas, Ralph & Paul Karoly(1972), “Effects of physical appearance on social responsiveness”, Psychological reports, vol. 31, pp.495-500.
 29. Cassel. J.(1957), “Social and cultural implication of food and food habit”, Am.J.pub.H. Vol 147, P.732.
 30. Cooly, N. H.(1962), “Personal Attributes of Color and Design Preferences in Clothing Fabrics”, Journal of Psychol, vol.54, pp. 191-195.
 31. Dion, Karen K.(1973), “Young Children's stereotyping of facial attractiv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9, pp. 183-188.
 32. Dion, Karen K. & Ellen Berscheid(1974), “Physical attractiveness and peer perception among children”, sociometry, vol. 37, pp. 1-12.
 33. Diane haeys and Catherine E.Ross(1987), “Concern with appearance, health beliefs, and eating habits”, J. H. S. B, vol.28, pp.120-130.
 34. Dwyer,JJ,et al(1969), “Adolescent attitudes toward weight and appearance” J.of nutr.edu.
 35. Dwyer,JJ,Feldman, JJ,et al(1970), “The social psychology of dieting”, Health soc.bwhav.vol 11,p. 269.
 36. David Landy & Harold Sigall(1974), “Beauty is talent”, J.P.&S.P, vol 29, no 3, pp.299-304.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 Having an Effect on Weight Control of Girl's High School Students.

Yeon Hee Kim, Yang Ja Hong

(Dept. of Health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ndard weight and the perception of the figure, making girls' high school students the object of scientific study.

Furthermore this study will try to find the factor having an effect on the weight through measuring the concern with appearance and health.

The study consisted of 658 girls'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methods of frequency, percentage, reliabilit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standard size of girls height was 160.95cm, their weight was 52.06kg.
2. 34 percent of the girls tested perceived of themselves of having proper figures. Especially in the case of overweight girls. Only 9.7 percent of girls were satisfied with their figure, the other 83.3 percent were not.
3. 88.4 percent of the girls were concerned with their weight. It was through mass communication that girls were concerned with their weight.
41.2 percent of the girls were concerned with weight much more through mass communication than through any other things. This showed that the effect of mass communication on juveniles was increased.
4. The result of correlation of variable about the concern with appearance($p < 0.001$), the perception of their figures($p < 0.001$), the existence of weight controller in friends ($p < 0.001$) and the concern with health($p < 0.001$) indicat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on the other hand, the satisfaction of their figures($p < 0.001$) indicated negative correlation.
This showed that the less satisfactory their figures were, the higher their concern about weight was.
5. In order to seize the variable having an effect on the concern with weight,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that the concern with appearance ($p < 0.001$), the satisfaction of figure($p < 0.001$), the concern with health ($p < 0.05$), pocket money ($p < 0.05$) and health condition ($p < 0.05$)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and the variables also 35.7% out of this model. Concern with appearance had the most important effect of all these variables.